

미래로 향하는 도시와 글로벌 디자인

~ 제15차 전국 여성건축사대회를 마치고

City for the future and Global Design



최보령 / 정회원 (주)테라공간 건축사사무소
by Choi, Bo-ryong, KIRA

-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대학 대학원
-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외래교수

1부-미래로 향하는 도시

특별한 기대는 없었다. 예정대로라면 우리는 첫 날 갯벌타워와 컨벤션센터를 견학하고 송도 투어에 이어 총회를 한 후 다음 날엔 인천대교 견학과 강연회에 참석할 것이었다. 그 뿐이었다.

일상에 밀려 어느덧 출발 전일이 되고 보니 다음에 갈까 싶기도 했다. 그만큼 필자에게 송도는 관심 밖의 먼 그 곳, 그저 대회가 열리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회의 주제가 되는 「미래로 향하는 도시와 글로벌 디자인」이란 구호가 그뻔 별 의미를 갖지 못한 채 내 의식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5월 22일. 평소보다 이르게 집을 나섰다.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된다. 택시 안에서든 지하철 안에서든 역 대합실로 향하는 광장 위에서도... 같이 출발하기로 한 일행들을 만나고서야 나의 조바심은 고개를 숙인다. 기왕에 나선 걸음이니 주어진 시간을 즐기고 오자 하는 생각도 든다. 길지 않은 기차여행은 즐거웠다.

들뜬 목소리는 여간해서 줄어지지 않았고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린 곳은 광명역. 각 지역에서 올라온 건축사들이 삼삼

오오 모여들고, 그 곳에서 갯벌타워까지는 집행부에서 친절하게 준비해 주신 버스로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갯벌타워 주변에 자리한 크고 작은 건물들은 아직 공사가 한창이었다. 날씨는 예상 밖으로 서늘했다. 낭패였다. 날씨가 영꾸물하다. 바람막이 옷을 하나 준비할 걸...

갯벌타워 1층에선 집행부에서 준비한 모자와 음료수, 명패를 나누고 반느라 분주하다. 모자까지 준비해 주신 배려에 고마운 마음이 먼저 든다. 낯선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씩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다. 세월은 우리를 비켜가지 않았지만 필자의 눈에 비친 그들은 어제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때 처음 보았다. 지순 초대회장님을. 너무도 당연하였을 터인데 대회에 새내기인 나로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이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분은 살아계신 전설이었다. 그저 한 평생을 건축에 몸담고 계심만으로도 존경받기에 너무 충분한, 그런 분이 마치 친정어머니와 같은 푸근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셨다. 아름다웠다. 평생 길 없는 길을 먼저 헤쳐나가신 분. 지금은 건축계의 원로로서 후배

건축사들의 앞길을 묵묵히 다져나가고 계시는 그분의 소탈한 모습에서 겸양하신 삶을 감히 넘겨 짚어본다. 예까지 오시다니 너무도 감사한 일이다. 갑자기 대회가 흥미로워진다.

갯벌타워 20층에서는 우리만을 위한 오붓한 식사공간이 마련되었다. 아직은 서먹한 분위기가 맴 돌았지만 그래도 함께한 일행들이 있어 테이블마다 즐거운 대화가 오고갔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담소를 나누며 테라스로 나섰다. 20층 위에 있는 테라스에선 바람이 더욱 거셌다. 질척한 매립지 너머로 보이는 바다와 그 반대편으로 저마다 뿔내 듯 서 있는 크고 작은 건물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가 보였다. 갯벌을 타고 불어오던 바람은, 우리를 갯벌타워 홍보관과 영상관으로 밀어 넣고 그들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미래로 향하는 도시...> 나는 그 위에서 있었다.

갯벌타워 영상관에서는 '세계 일류 명품도시' 라는 비전 아래 인천의 개발계획이 소개되었다. 테라스에서 본 모습은 그것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리고 홍보관에서는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송도, 영종, 청라구역을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었다.

개발구역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는 단연 개발의 선두에 서 있었다. 송도가 국제도시를 표방하며 개발하는 전체개발면적이 여

의도의 7배라 하니 가히 그 규모를 짐작할 만 했다. 한쪽에서는 건물 이 올라가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바다를 매워가는 작업은 이곳에서 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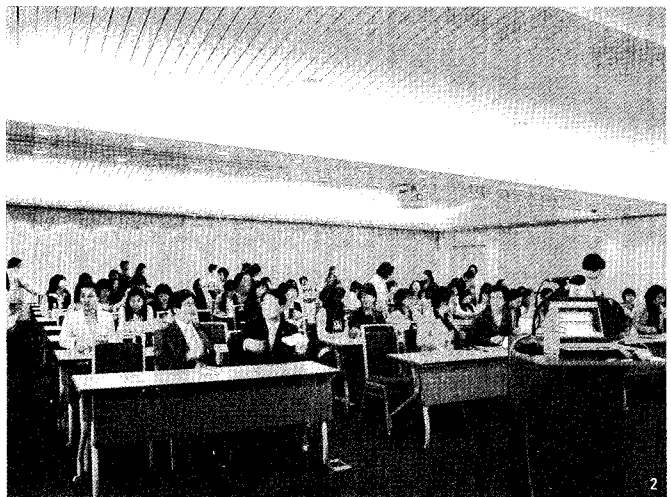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산업인 국제업무단지개발은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Gale)사가 합작해 설립한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주요기반시설로는 송도컨벤시아, 송도 국제학교, 중앙공원, NEATT(동북아 무역센터) 등이 있으며,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이중 주요한 몇몇 곳을 견학하게 될 것이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한 곳은 '송도컨벤시아'. 송도의 개발사업 중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국제업무단지 내에 있는 송도컨벤시아는, 대규모 회의장과 전시시설을 갖춘 지하 1층~지상 4층의 대형 전시 컨벤션센터로 1층에 전시장, 2층에 프리미어 볼룸 그리고 전문화 특성화된 회의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90m 길이의 무주공법과 포스트 텐션 슬래브(Post Tention Slab)공법으로 설계된 건물의 구조미는 그대로 내부공간과 연결되어, 2개실 분할이 가능한 활용도 높은 전시공간을 만들어냈고, 외관만큼 수려한 내부공간을 연출하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미국 게일(Gale)사로부터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소개받으며 그 방대한 규모와 미래도시 송도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송도를 돌며 주요건물들을 둘러보았다.

1. 송도갯벌타워 홍보관 견학 2. 컨벤시아 강연 3. 포스코 주택전시관 견학 4. 지 순 교수님의 특사



수로가 조성된 대형 쇼핑스트리트 커널워크, 포스코 글로벌 R&D센터, 송도사옥,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스퀘어, 센트로드 복합시설, 중앙공원 등 여기 저기 공사가 한창이었다. 맨해튼의 센트럴파크를 모델 삼았다는 중앙공원은 올 하반기에 준공예정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며 공원 내 최장 100m의 수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뭔가 거대한 힘이 느껴졌다. 내 발 아래로 거대한 국제도시를 꿈꾸며 낮은 포복으로 옆드려 꿈틀대는 송도가 새롭게 눈에 들어왔다.

송도 투어를 마치고 우리는 포스코건설이 국제업무지구 내 주거타운에 선보이는 지하 2층, 지상 38층 규모의 하버뷰Ⅱ 견본주택으로 향했다. 견본주택은 개방형 평면과 효율적인 동선설계로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활의 편의를 추구하고 있었다. 최적의 교육시설과 환경을 추구하며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송도국제학교 견학은 어제 내린 비로 취소된 상태였다. 주최 측에서는 많이 아쉬워했고 우리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였다.

2부-우리들의 축하공연

숙소는 그리 멀지 않았다. 객실의 커다란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밀어내고 있는 너른 매립지가 펼쳐져 있었다. 바로 아래에는 중앙공원이

그 형체를 드러내며 아직 공사가 한창이었다. 테이블에는 작은 환영카드와 함께 식욕을 자극하는 과일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다. 기분 좋은 배려였다. 상큼한 과일을 먹으며 잠깐 휴식을 취한 후 개회식장으로 발을 옮겼다.

개회식은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을 비롯하여 안상수 인천시장, 여성공학기술인협회 이영희 회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다. 특히 안상수 시장님은 인천의 미래상을 동영상과 함께 직접 소개해 주시는 열정을 보이셨다.

세계 속의 인천이 되기 위한 인천의 여러 국제행사 중 올 8월 7일부터 80일간 열릴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라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지만 개회식 행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여성건축사대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패도 증정하고 지역아동센터에 후원금도 전달하는 등 뜻 깊은 자리도 있었다.

총회는 박영순 전회장의 격려사와 이아희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이재택 회장의 추천으로 그동안 수고해 오신 황정복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하며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었다. 그렇게 송도에서의 첫날이 저물어갔고 축배제와 함께 늦은 만찬이 시작되었다.

적당한 포만감을 느끼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각 지역에서 참

1. 여러귀빈들이 참석한 행사장 풍경 2. 황정복 신임회장님 3.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전달 4. 동북아 무역센터 견학





갯벌타워 강연회장에서 단체사진

여한 신입회원들의 소개가 있었다. 그 중에는 선착순이 아닌 원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바란다는 다부진 건의도 있었고, 목포에서 참석한 어느 분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기도 했다. 저마다 하는 이야기는 조금씩 달랐지만, 지순 초대회장님을 비롯하여 여성건축사회를 위해 애쓰시고 지켜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해 하며 감격해 하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같았다. 그렇게 총회의 마지막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였을까... 따뜻한 연대감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한 목소리로 외치던 그날의 함성 속에, 서로가 서로인 듯 우리는 점점 하나가 되어 갔다. 그렇게 우리들의 축하공연(?)은 점점 열기를 더 해 갔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자리하였다.

3부-글로벌 디자인

밤은 유난히도 짧았다. 많이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냥 잠자리에 들기엔 뭔가 아쉬웠던지, 우리는 수학여행을 온 여학생들 마냥 늦게까지 모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정말이지 고등학교 수학여행 이후 처음 이지 싶다. 그대로 밤을 새워도 좋았지만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세 시간 쯤 잤을까.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창밖의 도로는 비에 젖어 있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침식사 중이었다. 깔끔한 한식의 질감이 반갑다.

우리는 일정에 따라 NEATT(동북아 무역센터) 설계과정을 담은 영상물을 시청한 후, 대우건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송도대우호텔의 객실을 비롯한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지하 3층, 지상 23층의 송도대우호텔은 연회장, 스파, 헬스클럽, 수영장, 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중앙공원과 주 진입로의 중심축상에 배치되어 컨벤션센터, NEATT(동북아 무역센터),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시설과 연계되어 있었다.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쉬웠다.

호텔에서 가까운 거리에 NEATT(동북아 무역센터)가 있었다.

NEATT(동북아 무역센터) 건물은 저층부의 사다리꼴 평면에서 중층부의 육각형 평면, 고층부의 삼각형평면으로 변하는 독특하고 세련된 입면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몇 개조로 나누어 고층부로 올라갔다. 대우건설 담당자의 브리핑이 있었지만 시간상의 한계로 충분히 들을 수는 없었다. 짧은 시간동안의 브리핑으로 많은 내용을 접할 수는 없었지만 글로벌 디자인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집약된 기술과 파트너십이 필요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다시 갯벌타워로 향했다.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 견학은 취소된 모양이었다. 국내 최장 다리인 인천대교는 기술적인 한계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면서 장차 송도와 서울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의 첫 포문을 여는 작업인 듯하였다.

갯벌타워 강연실에선 특별자문관이신 김수문 인천광역시장 자문역의 강연회가 있었다. 김수문 자문역은 연세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젊고 열정적이었으며 유머도 겸비하였다. 한국건축의 과거와 현재를 고스란히 품어 안은 채,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씀 속에서 현실적 한계로 힘들 수밖에 없는 후배 건축사들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도 느낄 수 있었다. 기념촬영을 끝으로 모든 공식 일정이 일단락되어 지고 우리는 마지막 오찬만을 남겨두었다. 모두가 즐겁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시 티타임을 갖으며 각 지역별 그룹별 사진촬영이 이어졌다. 그렇게 <15차 여성건축사대회>의 모든 일정이 마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야 조금씩 낮이 익을 즈음 우리는 행사를 주관한 집행부와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또 다시 내년을 기약하는 인사를 나누며 차에 올랐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많은 생각이 오고갔다.

「미래로 향하는 도시와 글로벌 디자인」은 송도, 그곳에만 있을 것인가.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남겨줄 것인가. 1박2일의 짧은 여행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망망한 바다를 메우는 저 슬픈 모래알갱이 속으로 다시 긴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